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13 (금요일)

[오늘의 한 줄]

젠슨 황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33년간 이끌어 온 창업자의 즉각 사임이라는 악재에도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오르며 버텼지만, 외국인이 장 후반 매도로 돌아서면서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라는 새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13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290.53 (-52.20, -0.98%). 2거래일 연속 하락. 2.05% 오른 5,452.41로 출발해 장 초반 5,504.44(+3.03%)까지 뛰며 5,500선을 터치했지만, 낮 12시 이후 하락 전환해 5,259.09(-1.57%)까지 밀렸다가 마감했습니다. 전강후약. 연중 고점(6/22 9,114.55) 대비 -42.0%, 하반기 고점(9/23 7,080.92) 대비 -25.3%. [계산]
- 코스닥 699.66 (+3.13, +0.45%). 장중 725.81(+4.20%)까지 오르며 700선을 되찾았지만 결국 700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 공포지수(VKOSPI) 50.15. 전날(51.32)보다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50대.
- 반도체: 삼성전자 206,000원 (-0.96%), SK하이닉스 121.6만원 (-3.03%), 삼성전기 855,000원 (-3.50%). 2~3%대 상승 출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전력기기 3종: HD현대일렉트릭 416,000원 (-1.19%), 효성중공업 180.7만원 (-1.63%), LS일렉트릭 123,300원 (-0.96%).
- 원화는 21시 기준 1,337.4원 (15시 30분 마감가는 6.0원 약세인 1,336.7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기대가 모였지만 눈에 띄는 즉각적인 호재가 없었다는 평가가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 CoreJang(VKOSPI), 네이버 금융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3129251008
https://www.corejang.co.kr/briefs/2026-11-13-close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5,475억원.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끝내고 4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 장중에는 순매수를 보이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 +21억원 (연기금등 +2,109, 금융투자 -1,144, 투신 -639, 사모 -325), 개인 +174억원, 기타법인 +5,310억원.
- 코스닥: 기관 +1,262억원, 외국인 -752억원, 개인 -563억원.
- 누적(9/23부터, 네이버 기준 집계 이어 계산):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8조5,876억원, 코스닥 약 2조1,277억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3129000008

■ 미국 시장 (11/12 목요일 마감)

- 젠슨 황 사임과 유가 급등 속 3대 지수 모두 하락: 다우 -0.36% (52,297.09), S&P500 -0.35% (7,592.40), 나스닥 -0.39% (25,366.09),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4% (10,506.67).
- 엔비디아 166.19달러 (-4.34%). 개장 직후 13.08%까지 급락했다가 낙폭을 대부분 회복. 13일 개장 전에는 1.8% 오른 수준 (미 동부 오전 5시 기준, CNBC).
- 아이온큐 30.86달러 (-9.40%), 코어위브 56.60달러 (-6.86%), 샌디스크 -4.11%, 블루아울 -4.32%, KKR -2.85%, 블랙스톤 -2.84%, 마이크론 -1.59%, 팔란티어 171.58달러 (-0.48%).
- 반면 구글 +1.79%, 마이크로소프트 +0.36%, 아마존 267.44달러 (+0.48%).
- 나스닥 100 선물은 한국시간 밤 9시 기준 보합권 (+0.2%, 진행 중).
출처: 야후파이낸스, CNBC
https://www.cnbc.com/2026/11/13/nvidia-nvda-stock-jensen-huang-transition.html

■ 엔비디아: 젠슨 황 즉각 사임, CFO가 임시 CEO

- 엔비디아 이사회가 12일(현지) 공식 발표: 젠슨 황이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즉시 물러났습니다. 1993년 창업 이후 33년 만의 퇴진입니다.
-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수석부사장이 임시 CEO를 맡습니다. CFO 자리는 유지하면서, 정식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겸직합니다. 이사회는 사내외를 대상으로 후임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 하비 C. 존스가 회사 사상 첫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시놉시스 CEO를 지낸 벤처 투자자입니다.
- 배경: 뉴욕타임스가 황의 킴벌리 파월(헬스케어 부문 부사장)과의 관계를 보도했고, 로이터는 또 다른 엔비디아 직원과의 관계를 추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사회는 앨리스 황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 시장 평가: 사임 전 여러 애널리스트가 CNBC에 "황의 이탈은 시가총액의 최대 20%를 날릴 수 있다"고 말했고, 주가는 이미 한 달 새 20% 넘게 내렸습니다. ODDO BHF의 스테판 우리는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황의 비전에 기대어 온 AI 산업 구조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3분기 실적 발표는 11/17 (미 서부 오후 1시 20분, 한국시간 11/18 오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회사는 못 박았습니다. 크레스 체제의 첫 실적 발표가 됩니다.
출처: 엔비디아 뉴스룸 (공식 발표), CNBC
https://nvidianews.nvidia.com/news/nvidia-announces-ceo-transition
https://www.cnbc.com/2026/11/13/nvidia-nvda-stock-jensen-huang-transition.html

■ 앤트로픽 IPO: 공모 물량의 6배 수요, 역대 최대 전망

-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앤트로픽 IPO에 매각 예정 주식의 약 6배에 달하는 매수 의향이 접수됐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투자자는

기대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투자은행들이 안내했다고 합니다.
- 조달 규모는 공모 최대 644억달러에 별도 사모 260억달러를 더해 최대 904억달러 (약 121조원). 성사되면 스페이스X를 넘어 사상 최대 상장이 됩니다. 목표 기업가치는 완전희석 기준 약 1조4천억달러.
- 11/18 (수) 공모가 확정, 11/19 (목) 나스닥 거래 시작 예정입니다. [계산]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3025400072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 (11/12 재무부 확정): 10년물 5.10% (+0.12%p). 확정치 기준 5%를 넘었습니다. 2년물 4.86%, 30년물 5.43%, 3개월물 4.32%. 10년-2년 스프레드 +0.24%p. [계산]
- 한국 국채 3년 3.756% (+2.3bp). 일본 30년물은 3.985% (+6.5bp)로 상승했다는 13일 오전 속보가 있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 인용, 진행 중).
- 유가 급등: 브렌트 96.14달러, WTI 88.57달러 (한국시간 14시 기준, 진행 중). 예멘 후티가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송유소, 얀부 석유 시설, 리야드 아람코 건물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4척이 폭발 피해를 입었다고 이란 군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걸프 지역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 브렌트가 2027년 14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로이터 인용).
- 금 3,899달러 (+0.4%, 진행 중).
-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 항공유 갤런당 4.035달러, 경유 4.204달러 (11/11 기준일). 항공유는 3주 연속 하락. [계산]
출처: 미 재무부, 이코노믹타임스, 네이버 금융, EIA
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6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markets/commodities/news/oil-price-today-november-13-brent-crude-climbs-above-95-after-fresh-middle-east-attacks-trump-says-no-need-for-deal/articleshow/135786568.cms

■ AI 가격 신호 3종 (11/12 미국장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열기의 온도를 재는 세 가지 온도계입니다.
1. 반도체 대 나스닥 괴리: 최근 20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9.28%, 나스닥 -5.04%로 괴리 -4.24%p. 전날(-4.99%p)에서 소폭 축소. [계산]
2. 빅테크 대 취약 AI 평균 낙폭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알파벳) 평균 -20.51%, 취약 5종(팔란티어·아이온큐·코어위브·오라클·블루아울) 평균 -40.30%.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30.53%로 -30% 선을 넘었습니다.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8.09% (전날 -7.73%에서 다시 확대). [계산]

[판단]

-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던 창업자 사임이 현실이 됐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엔비디아가 장중 13% 급락을 4%대로 회복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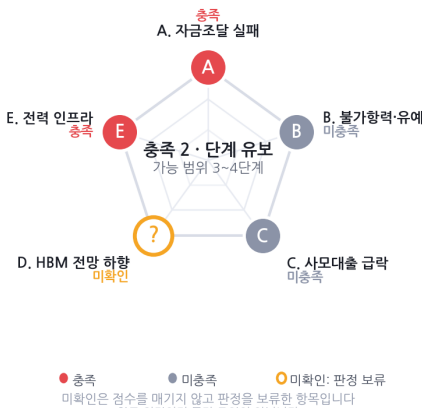
코스피도 장중 5,500선까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일단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 다만 두 가지가 눈에 박힙니다. 하나, 외국인이 장 후반 순매도로 돌아서며 반등을 깎았다는 점. 사흘의 매수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둘, 유가입니다. 중동 공격과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 브렌트가 96달러까지 뛰었고, 유가가 더 오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기대 모두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AI 리스크와 별개의 새로운 하방 압력입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1) 11/17 엔비디아 실적 - 크레스 임시 체제의 첫 성적표에서 HBM·칩 수요 전망이 유지되는지. (2) 11/18 공모가 확정 후 11/19 앤트로픽 상장이 6배 수요대로 완료되면 A 조건(자금조달 경색) 해제를 검토합니다. (3) 브렌트가 100달러를 넘으면 유가발 긴축 우려를 시나리오에 추가합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290.53 아래일 것" - T+1(11/16, 월), T+5(11/20, 금)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어제와 닷새 전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12 판단: "코스피 종가가 5,342.73 아래일 것" (T+1, 11/13 검증) → 실제 종가 5,290.53. 적중.
- 11/6 판단: "코스피 종가가 5,059.69 아래일 것" (T+5, 11/13 검증) → 실제 종가 5,290.53. 빗나감. 11/10~11 이어진 반등이 지수를 5,300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 해석: 전강후약 흐름은 맞췄지만, 엿새 전 반등 시작점에서 본 하방 전망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누계 31건 중 18건 적중.
- 한계: 이 복기는 '종가가 어제보다 낮을지'만 맞추는 단순한 규칙의 성적표이고,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적인 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력의 증거가 아니라 참고 기록입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 (유지). 네비우스의 하이일드 채권 철회와 발행 보류 건은 그대로입니다. 앤트로픽에 6배 수요가 몰리고 역대 최대 상장이 눈앞이지만, 최상위 한 곳의 흥행이 하위 네오클라우드의 조달 경색을 덮지는 못합니다. 11/19 상장 완료를 확인하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출처: 로이터, 온인베스트(WSJ 인용)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banks-investors-grow-wary-of-ai-debt-spooked-by-marketselloff-5011246
https://en.oninvest.com/article/wsj-weak-links-suffer-first-as-high-yield-bond-market-all-but-closes-to-neoclouds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새로 확인된 통보가 없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블랙스톤이 -20.61%로 처음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폴로 -15.48%, KKR -15.70% (11/12 종가). 1사뿐이라 미충족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두 곳도 하락 중이라 다음 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회사 공시 하향은 없고, 엔비디아는 11/17 실적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창업자 공백 속 첫 실적이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증권사 목표가 하향(번스타인 400→200달러)은 공시가 아니므로 미충족이 아니라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버노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GE버노바 -30.33% (11/12 종가), HD현대일렉트릭 -67.50%, 효성중공업 -56.95%, LS일렉트릭 -56.74% (한국 3종 11/13 마감). 4종 모두 기준

아래. [계산]
- 종합: 충족 조건은 A와 E 2개('3단계' 해당).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3~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